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 입맛 잡는다”

오비맥주가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제품 주요 요소에 혁신을 도입한 ‘올 뉴 카스’, 사전 소비자 테스트로 완성도를 높인 ‘한맥’, 스마트 분리공법을 적용한 ‘카스 0.0’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주류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뉴 카스’ 고수준 양조기술로 깔끔한 맛 구현 세련된 병 디자인과 ‘쿨 타이머’로 신선함 전달 우리 쌀 함유 ‘한맥’, 소비자 피드백 제품 반영 ‘카스 0.0’ 알코올만 추출해 맥주 고유의 맛 보존

●혁신적 변화 도입한 ‘올 뉴 카스’

최근 선보인 ‘올 뉴 카스’에는 오비맥주의 혁신적 기술과 비전이 총망라됐다. 디자인, 원재료, 공법 등에 소비자 트렌드를 만족시킬 혁신적 변화를 도입했다. 우선 투명 병을 채택해 심플함과 투명성을 표현했다.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카스의 청량감과 신선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날렵하고 세련된 모양의 병 디자인을 통해 ‘보는 즐거움’도 더했다. 블루 라벨은 간결하고 과감한 이미지로 변경해 투명한 병 속 맥주의 황금색과 대비를 이뤄 청량감을 극대화했다. 고수준의 양조기술과 브루마스터, 이노베이션 팀의 노력을 통해 맛의 혁신도 이뤄졌다. 최상급의 정제 출과 최적의 맥아 비율이 깔끔한 맛을 구현한다. 0도에서



오비맥주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 제품으로 주류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 뉴 카스’를 소개하고 있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72시간의 저온 숙성을 통한 품질 안정화 과정을 거쳐 양조장에서 갓 생산한 듯한 신선한 맛을 제공한다. 변은 잉크를 활용한 ‘쿨 타이머’도 선보였다. 맥주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온도가 되면 육각형 모양 온도센서가 밝은 파란색으로 변하며 하얀 눈꽃송이 모양이 나타난다.

●소비자 테스트로 완성도 높인 ‘한맥’

1월 출시한 한맥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라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간단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어 “100년 한국 맥주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경기 이천 공장에 위치한 이노베이션센터에서 개발과 연구를 지속하며 맥주에 들어갈 원재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맛을 위해서는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쌀을 함유한 보다 깔끔하고 상쾌한 풍미의 ‘한맥’이 탄생했다. 한맥에 적용된 혁신은 출시 전 실시한 심층 소비자

●스마트 분리공법, ‘카스 0.0’

지난해 10월에는 스마트 분리공법을 적용한 무알코올 제품 ‘카스 0.0’을 선보였다. 기존 무알코올 제품이 발효 과정 없이 맥아 엑기스에 홉과 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과 달리, 카스 0.0은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로 동일한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스마트 분리공법을 통해 알코올만 추출해 맥주 고유의 짜릿하고 청량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배하준(본명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는 “소비자 트렌드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할 것”이라며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건강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봄만 되면 심해지는 ‘알레르기 비염’ 방치 말고 정확한 원인 찾아 치료해야

봄은 비염 환자에게 괴로운 계절이다. 봄철에 증가하는 초미세먼지나 황사, 꽃가루 등이 모두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는 항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코 점막에 자극을 줘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콧물과 재채기가 주요 증상으로 코감기와 혼동하기 쉽다. 알레르기 비염이 집먼지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미세먼지 등 다양한 항원에 의한 자극이라면 코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질환이다.

실제로 코감기로 생각해 콧물과 재채기 증상을 방치했다가 축농증이나 중이염 등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알레르기 비염을 장기간 방치하면 심하면 후각 장애까지 이를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관련 질환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깊게 관찰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봄철 알레르기 항원은 외부활동 시 노출되기 쉬운 만큼 외출 후에는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코 안도 세척하는 것이 좋다. 실내가 건조하면 호흡기 방어력이 저하되는 만큼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평소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나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증상에 따라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면역요법이나 고주파 비염 수술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원인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쉬우므로 각종 검사로 원인물질을 찾아 노출을 최소화하고, 일상에서도 정결과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강남역 이비인후과 연세코앤 송정환 원장

하이트진로, 베트남·캄보디아서 두 자릿수 성장

하이트진로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시장 규모를 넓히고 있다. 2016~202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내 소주 수출 부문에서 각각 26%, 43%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했다. 현지 2030 젊은층 겨냥 마케팅이 주효했다. 1월 베트남 박닌시 변화가에 진로비비큐 2호점을 열었다. 한국 소주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푸느면띠이(1990년대 태어난 고소득 여성층)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진로 제품 이미지로 랩핑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거리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진로 360EDM 페스티벌 등 대형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파상’...단번에 시총 28위

상한가 16만9000원으로 장 마감

동학개미의 바람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파상’(공모가 2배 시초가로 상장 후 상한가 진입)으로 마감했다. 올해 첫 대형 공모주인 SK바이오사이

언스는 18일 오전 9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공모가의 200%인 13만 원에 상장된 후 바로 가격 제한 폭인 30%가 오르며 상한가 16만9000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개장 직후에는 주가 급등으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

되기도 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이 마감할 때까지 상한가를 지켜 화려한 코스피 입성 첫날을 보냈다. 상장 첫날 거래량은 77만4794주였고, 거래액은 1303억 2800만 원이었다. 상장 첫날 ‘파상’을 기록하면서 공모가의 160%가 오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12조 92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상장한

SK바이오팜(8조8000억 원)과 박히트(8조3000억 원)의 시총을 단숨에 뛰어 넘고 코스피 시총 순위 28위(삼성전자 제외)가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9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파상상’을 하면 시총이 16조8070억 원까지 증가해 시총 순위가 삼성생명을 제치고 22위까지 상승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뽕이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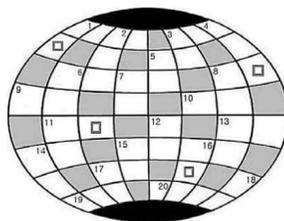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6	8					
		5	4		1	7		
	8	1			3	9		
5	7			1			6	2
		3	7					
8	1		6			3	7	
	5	2			6	1		
		8	9	4	2			
		1	6					

■ 스도쿠정답

9	7	8	9	2	1	6	8	3
8	2	7	5	6	8	9	1	4
6	1	9	8	3	2	5	7	4
4	8	6	2	9	5	7	1	8
9	5	1	7	4	8	9	2	6
2	9	7	6	1	8	5	4	3
7	6	8	5	2	1	4	9	3
9	8	2	1	8	7	9	6	2
1	2	9	8	6	9	2	7	5

■ 날말문제



■ 가로열쇠

01. 태권도에서 대각선상의 상대편을 공격하는 발기술. 03. 탈이 없도록 문을 단단히 잠금. 05. 생산품을 시장에 냄. 06. 어떤 일의 때가 아직 이롭. 08. 생선을 저며 양념을 해 말린 포. 09. 해상서 열리는 생선 시장.

10. 두부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음식. 11. 슬프고 애절한 노래. 13. 정한 시각보다 늦게 도착함. 14. 가장 긴요한 때의 상황. 15. 이불과 요. 17. 조선 때 양반과 천민의 중간 신분의 천역에 종사하지 않던 일반 백성. 19. 다리를 엄호하기 위해 쌓은 보루. 20. 다리가 드러날 만큼 짧은 치마.

■ 세로열쇠

01.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 02. 철도의 건널목을 봉쇄해 왕래를 막는 장치. 03. 책을 넣어 두는 상자. 04. 쉽게 장전해 빨리 발사할 수 있는 포. 05. 낚시하러 떠남. 06.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함. 07. 위와 아래. 08. 쌍방이 다투는 틀에 제3자가 가로챈 이득. 12.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14. 지상으로 높게 놓은 다리. 15.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16. 쇠불이 같은 것이 부딪쳐 울리는 소리. 17. 길·자리를 사양해 남에게 미루어 줌. 18. 선거 등에 입후보함.

■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큰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